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워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같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거고, 혼자 있다면 혼자 있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묘법이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이러면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들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질척한 데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한 부분으로 친다면, 또 나무들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거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분류로 치는 이 속에서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길 했을 겁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떡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사람한테 침입해서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하여금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는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의 뜻을, 무(無)의 세계의 한 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죠.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치를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안 되는데…'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 죽들 앉았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차라리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촐나촐나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가 '구정토(九淨土)'라고 말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소속되어 있는 구정토다 이 말이죠. 지금 은하계가 있으면 은하계의 별들을 보호하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그 태양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생(四生)입니다. 태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흙과 물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과 바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죠. 태양이 위로는 근본 별성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을 자라게끔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토는 어떻게 해서 구정토라고 그러냐 하면 은하계에 있는 혹성들만 해도 이거는 삼심(三心)에, 삼심! 이렇게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 되지마는, '삼세심(三世心)' 하는 것은 구정토가 다 들어갑니다. 혹성이 다 포함돼죠. 혹성 외에 있는 것은 구정토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 구정토가 소속돼 있는 건 은하계에 소속돼 있는 거죠. 그건 왜냐? 힘은 각자 강하지마는 우리 생명체들은 전부 별성에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이승에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데 모인다면, 지금도 한데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면서 깡패나 강도나 도둑, 마적 이런 거와 똑같은 얘깁니다. 또 이걸 비교해서 한번 말하죠. 여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공직에 있어서 사람을 너무 못살게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추방을 시켜서 내쫓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서는 나쁜 놈들을 전부 모으는 거야. 오년이 되든 십년이 되든 모아가지고서는 단결이 돼가지고는 사람을 해치는 거야.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들도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악이 그렇게 선을 해치기도 해. 악과 선을 다 놓은 상태에는 하나의 주장자가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있는데, 그 주장자 밑에서 악과 선을 다루고 일하는 그 주모자를 해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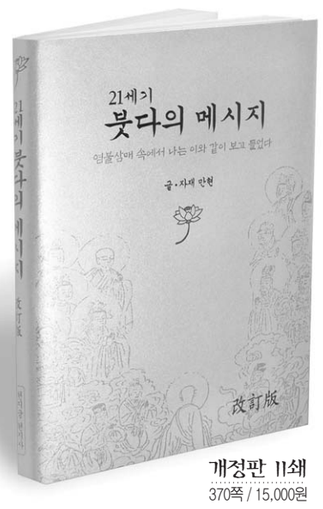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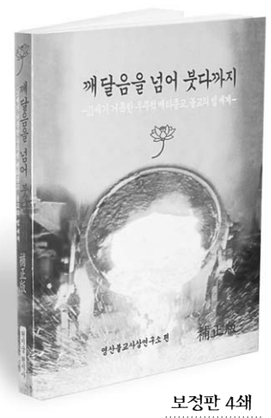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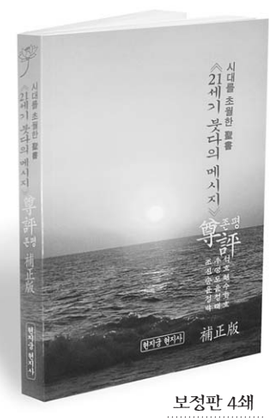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